

# “사람·자연 공존” 장성 황룡강 꽃길축제 준비 ‘총력’

### 국가하천 승격 이후 첫 행사...내달 26일 봄꽃 플로깅 환경 보호 기조...일회용품 사용 자제·환경 콘텐츠 마련

장성군이 황룡강 국가하천 위상에 걸 맞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동무 꽃길축제를 만들기 위해 환경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5월24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음악이 흐르는 장성 황룡강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황룡강변 일원에서 열리는 길동무 꽃길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황룡강은 장성호에서 발원해 영산강까지 이어지는 ‘장성의 젖줄’이다. 지난 1월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정부 차원에서 관리 중이다.

이번 길동무 꽃길축제가 국가하천 승격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장성

군은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먼저 주목되는 행사는 ‘플로깅’이다. ‘플로깅’은 스웨덴어 ‘이삭 줍다’에 ‘달리다’가 더해진 말로, 자연을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장성밀알회, 여성자원봉사회, 전국소년체전자원봉사자, 국립공원과 리공단 백암사무소, 지역 청소년 등 70여명이 황룡강 일원에서 자발적으로 ‘온기 나눔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축제 마지막 날인 5월28일에도 ‘플로깅’이 예정돼 있다. 장성군은 방문객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봄꽃 플로깅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변을



장성밀알회, 전국소년체전자원봉사자 등 70여명이 최근 장성 황룡강 일원에서 자발적으로 ‘온기 나눔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장성군 제공)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정해진 과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환경 보호’ 기조도 이어간다. 장성군은 향토식당, 푸드트럭 등에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목 꾸준히 소통할 계획이다.

봄꽃 체험행사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콘텐츠도 준비한다.

김한중 군수는 “축제가 오늘의 우리를 위한 시간이라면, 환경 보호는 미래

세대를 위한 배려이자 준비”라며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가치 추구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는 5월25일 ‘뮤직 페스티벌’을 새롭

게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봄 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확장·발전시켜갈 방침인 만큼, 출연진 섭외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확정된 ‘라인업’은 4월 말부터 공개된다.

/장성=김문태기자

## ‘고흥 유자에이드’ 파리올림픽 음료 시장 공략

### 유럽수출개척단 협약 첫 상자...2만4천팩 수출길

고흥군이 고흥 유자에이드(사진)를 프랑스파리올림픽음료 시장에 선보인다. 고흥군은 “최근 엔자임팜에서 고흥 유자에이드 프랑스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공영민 군수가 이끈 ‘고흥군 농수산물 유럽 수출개척단’이 지난 4월 초 프랑스 파리 출장을 통해 총 500만달러(한화 68억원) 규모의 수출협약 체결에 따른 첫 상자다.

수출길에 오른 상품은 엔자임팜의 고흥유자 원액으로 만든 유자에이드로 2만4천팩(230ml)이며, 이번 1차 수출 상차를 기점으로 유자 마말레이드, 유자 곡물당, 고흥 유자차, 고흥 김 등을 지속 수출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의 K푸드 열풍과 2024년 파

리 올림픽 시장 특수에 맞춰 현지인 입맛에 맞는 유자 관련 신상품 개발 출시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온 결과로써 그 의미가 크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 농수산물의 안

정적인 수출 판로 개척과 고급 식재료 시장 진출에 노력해 세계인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브랜드 상품을 만드는 한편, 농어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로는 행정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흥=최봉환기자



## 양동진 순천시의원 징계 요구시한 개정규칙안 의결

### 주말·공휴일 고려 징계 요구·회부시한 연장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해룡 신대리·사진)은 28일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최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시한과 관련해 주말 등이 겹치

면 부득이하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요구시한 조정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말·공휴일 등을 고려해 징계의 요구·회부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혹은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

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다.

양동진 의원은 “징계 요구 시 징계 대상자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와 그 행위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에 현행 5일 이내는 매우 촉박한 실정”이라며 “휴일이 겹치는 경우까지 고려해 징계 요구 시한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순천시의회 의결 유지와 민주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순천=양홍렬기자

## 보성, 취약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보성군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부문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보성군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2천100여만원을 인건 시군 건강관리사들의 출장비 및 활동 장려금(인센티브) 지급에 투입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는 원거리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지역의 산모와 신생아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전에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산모의 건강 증진과 신생아 양육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성=임병연기자

## 구례군,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군민의 상’ 수여

### 지역 관광 이미지 개선·발전 이바지

구례군은 “최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3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 불교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본명 김태영·58세)에게 2024년 구례 군민의 상을 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덕문 스님은 지난 32년간 구례군 지역사회와 관련한 문제 거론된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폐지에 지역 관광 이미지 개선과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덕문 스님은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화엄권역의 발전 토대를 마련, 2020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성금 및 물품 지원,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비롯해 난치병 환자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랑과 자비의 쌀 나눔 등 군민을 위한 꾸준한 나눔에 출신수범했다.

김순호 군수는 “덕문 스님이 평소 구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2024년 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전 군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기자

## 담양 시장, 옥상정원형 상설시장으로 ‘재탄생’

### 192여억 투입...루프탑서 관광청·읍 면시까지 조망

담양군은 28일 “5일장으로 운영되던 담양시장이 3년5개월여의 공사를 마치고 옥상 정원을 품은 상설시장으로 재탄생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최근 옥상정원형 담양시장의 건축을 완료하고 담양시장 정문 광장에서 이병노 군수를 비롯해 이계호 국회의원,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 최형식 전 담양군수, 이규현 도의원, NH농협은행 이기복 담양군지부장, 권현오 담양경찰서장, 윤예신 담양소방서장, 정영창 담양군체육회장,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옥상정원형 담양시장은 192억5천600만원(국비 13억원, 도비 61억원, 군비 11

8억5천600만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6천214㎡에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다. 1층 4개소, 2층 7개소(푸드코트), 3층 1개소(카페) 등 12개소의 점포와 지하 주차장 64면, 관리사무실, 루프탑 정원, 엘

리베이터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꽃과 수목이 식재된 루프탑 정원은 휴식과 함께 아름다운 관광친 풍경과 읍 시가지 조망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될 전망이다.

이병노 군수는 “5일장에서 상설시장으로 새 출발하는 담양시장에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며 “집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국가대표브랜드대상’ 수상

### 편백숲·어머니 품 장흥 관광 콘텐츠 높은 점수 기여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가 ‘2024 국가대표브랜드대상’ 웰니스 부문에 선정됐다.

(사진)

28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엠베서더서폴라호텔에서 열린 ‘2024 국가대표브랜드대상’은 매경미디어그룹에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원한다.

국가대표브랜드대상은 소비자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산업 부문별 최고의 브랜드에게 주는 상이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편백숲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웰니스 관광콘

텐츠 개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어머니 품 장흥’이란 군정 핵심 기조를 담은 웰니스 관광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에 주력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흥군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를 미래 비전을 담은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치유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 중이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숲치유센터, 편백소금길, 말레길 등 다양한 웰니스 관광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주관하는 대한민국 웰니스 관광지에도 5년 연속 선정돼 연 20여만명의 관광객이 우드랜드를 방문하고 있다.

/장흥=노홍렬기자

## 여수시,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업무협약 체결

### 아동권리교육·위기아동 후원 등

여수시는 28일 “지난 28일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아동권리교육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여수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 등 아동권리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아동권리교육 대상자 모집 및 위기가정·장애아동 희망케어 등 대상자 선정을, 세이브더칠드런은 강사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위기아동 후원·연계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여수시는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유엔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 받고,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 권리

존중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여수시청 직원, 시의원, 어린이집, 아동·청소년 시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활발히 진행 중으로, 이번 업무협약은 시의 아동권리교육사업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최초

의 아동권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아동권리 실현과 아동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국제아동권리 NGO 단체로, 5개 본부와 11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수 관내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결식우리아동 식사지원 사업, 아동 청소년 학습 공간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김진선기자

